



피서지에서서의 응급조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이나 약국이 없어 곤경에 빠지는 사례가 여름철 피서지에서 종종 발생한다. 요즘 모든 국민이 “휴대폰”이란 편리한 도구가 있어 어디에서나 119 구급대에 요청을 할 수 있으나, 한시가 급한 환자에 있어 응급조치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하겠다. 여름철에 피서지에서 발생하기 쉬운 긴급 사항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을 살펴본다.

화상을 입었을 때

여름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 노출된 피부에 화상을 입고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에는 차가운 물에 오래 담그거나 젖은 차가운 붕대로 덮어주면 통증을 덜고 화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찬물에 10분이상 담그면 저체온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체온 증상이 있을 때

깊은 계곡 등지에서 섭씨 21도 이하 차가운 물에 놀다가 일어나기 쉬운 증상으로 외형상 죽은 것으로 보일 정도로 축 늘어지고, 심하면 혼수상태에 들어간다. 이런 경우 따뜻한 장소로 옮기고, 환자를 모포로 덮어 체온을 올려줘야 하며, 환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한 상태에서 신속히 구급요청을 한다.

실사병이나 열사병 증상이 있을 때

무더운 날씨에 심한 운동으로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이 소실되므로

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무력감이나 현기증, 두통, 몽롱함, 구토, 식욕부진, 얼굴창백, 피부는 차갑고 축축한 증상을 동반한다. 이런 경우 그늘지고 선선한 곳으로 옮기고 꼭 끼는 옷은 느슨하게 해줘야 한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입에 물 1리터 정도를 먹여야 하나,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물을 먹었다간 폐로 흡입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신속히 구급요청을 한다.

뱀에 물렸을 경우

뱀의 물렸을 경우 먼저 독사인지는 아닌지가 중요하다. 독사의 경우는 물린 자리에 2개의 이빨 자국이 남는다. 또한 주변이 벌개지며, 심하게 붓는다. 그 밖에 구토, 구역질, 호흡곤란, 시력의 급격한 감퇴 등의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 구급요청을 하고, 환자를 편하게 눕힌다. 환자가 움직이면 독이 빨리 퍼지므로 상처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은 상처보다 심장에 가까운

위치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세기로 묶고, 필요시에는 상처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는다.

벌(말벌)에 쏘였을 경우

벌(말벌)에 쏘이면 먼저 피부에 남아 있는 독침을 핀셋 등으로 조심스럽게 상처부위를 긁어 제거한 후 얼음 주머니로 대고 상처부위를 고정시킨채 병원으로 이송시킨다. 평소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음식물 알레르기 등이 있는 사람은 벌침 알레르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모기, 벼룩, 빈대 등에 물렸을 때

휴가철에 흔히 모기, 벼룩, 빈대 등에 잘 물린다. 이런 경우 가려움을 참고 견디면 몇시간 후에 자연적으로 사라지나 참기가 어려울 경우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소독약으로 발라 준다. 